지산동 법원 주변 '주차 전쟁' …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차 전쟁

민원인 등 하루 2000명 방문

확보된 주차공간 900여면 불과

무단 주정차 차량에 주민도 고통

대란 예고

광주지법, 지하주차장 공사 중

2022년 10월까지 별관 증축

동구, 공영주차장 조성 '더디기만'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뒷편 좁은 이면 도로에는 담벼락을 따라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바람에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고(왼쪽), 광주지방검찰청 내 주차장도 이중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 앞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해놓은 차량 번호로 전화해도 안받아 결국 택시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법정에 들어가 못 받았다네요. 어쩝니까."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광주지검 일대 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찾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인근 주택가를 돌며 주·정차해놓는 민원인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치열하다. 좁디 좁은 골목길에 새벽부터 빼곡이 주차된 차량들 탓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도 부족할 때가 많고, 집 앞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놓고 법정을 들어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한다.

광주시 동구가 지산동 법원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분석한 일대 유동인구는 하루 2000명 가량이다. 이들이 몰고 오는 차량들을 대략 소화하려면 필요한 주차 공간은 대략 1500면이라는 게 동구 분석이다.

반면, 확보된 무료 주차공간은 652면에 불과하며, 여기에 주변의 유료 사설 주차장까지 합해야 고작 935면이다.

무료 주차공간인 공영주차장(71면)·법원(275면)·검찰청(306면) 등이 652면이며, 인근 20개 사설주차장은 283면이다. 특히 이들 사설주차장은 지역 최고 수준인 20분당 1000원의 비싼 주차료을 받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불어 법원·검찰 직원들이 양 기관 주차공간 581면 중 481면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민원인들이 법원·검찰 청사 내에서 사용할 공간은 100면에 불과한 탓에 주변 골목길을 헤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열리는 재판 및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원을 찾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차량들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인근 20개 사설 주차장도 항상 가득 차 사설 주차장 찾는데도 몇 바퀴를 돌아야 할 정도다. 하루 평균 10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 인근에 사는 주민 정모(39)씨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차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집 앞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때문에 자가용을 놔두고 택시를 타고 움직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8)씨는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너무 빽빽하게 주차돼 있어 지나가려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있다.

최근엔 광주지법 내 지하주차장 공사로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지면서 검찰청 주차장과 인근 주택가로 차량들이 몰리는 일이 더 많아졌다. 급기야 검찰청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별도 안내·공지도 없이 주차 직원들 임의대로 '장기주차위반'이라는 스티커를 당일 주차 차량에게도 붙여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 주차난은 올해 말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광주지법은 내년 광주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기간 법원 주차장 사용은 불가능해진다. 광주지방법원은 4만 910㎡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별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공사기간은 오는 2022년 10월 말까지다.

동구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영주차장(2000㎡, 자주식 80면)을 조성키로 했었다. 하지만 토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동구는 현재까지 6필지 총 830㎡(250평)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나머지는 가격 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조속한 시간 내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 강제동원 배상 명령 2년' 日 정부 나서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성명

미쓰비시는 사과는 커녕

법원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한국 사법부 결정 가볍게 취급

근본적 책임은 일 정부에…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은

궁색한 변명일 뿐

미쓰비시, 협의에 나서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 2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본 정부가 나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결 이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지 오늘로 2년에 이르렀다"며 "안타깝게도 미쓰비시는 사과 표명은커녕, 판결 2년이 되도록 법원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한국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휴지조각 대하듯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사과와 배상을 미루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은 쓰러지고 있다"며 "히로시마 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모두 사망했으며 근로정신대 소송 역시 피해자 5명 중 2명이 세상과 결별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난했으며, 일본 법원마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며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협의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가 소유한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배상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구 "구간 경계조정에 시민 힘 모아 달라"

광주시 동구는 구간 경계조정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 결정한 '중폭 조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구는 입장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구는 "중폭 조정안에 대해 엇갈리는 여론은 경계조정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손해를 보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면서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주민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도서관 수도 부족하다. 행정 서비스 효율을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자치구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경계조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새로운 도약과 지역 간 공존을 통한 광주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계조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논문대필 알선 교수 보강 수사

경찰이 논문 대필 알선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불거진 광주교대 모 교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제안하고 심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사기 등)를 받는 광주교대 모 교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올해 초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제안해 금전 거래를 주선하고, 심사비 명목의 돈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논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심사비는 일종의 관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6
총계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5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20. 11. 30(월) ~ 12. 9(수)
· 전 형 일 :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www.kwangshin.ac.kr